

# 육사테니스장 분쟁속으로

## 신 집행부, 채무 면제를 해준 협약서 인정 안 해



대한테니스협회와 육군사관학교가 MOU를 맺고 재개장한 육사테니스장이 분쟁 위기에 놓였다. 리모델링 당시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면제를 약속 했던 구리시가 시장이 교체되면서 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기부채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테니스협회는 자금을 차입한 미디어윌과도 금전대차 분쟁이 발생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중단장한 육사테니스장은 향후 일반인은 사용을 못할 수도 있다. 육사테니스장의 분쟁은 제27대 집행부(회장 박용운)가 육사테니스장을 리모델링 한 제26대 주원홍 회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자금을 대여한 미디어윌(테니스코리아의 모기업)은 여러 차례 원만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대한테니스협회의 거절로 조정에 실패하여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었다.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조정과 협의를 거절한 대한테니스협회에 있다. 육사테니스장의 리모델링 배경 및 과정을 밝혀둔다.

글\_ 김홍주 기자 사진\_ 최대일(스튜디오 UP)

###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경위

육사테니스장은 1982년에 클레이코트 16면으로 개장하여, 이후 14면으로 축소되었고, 1995년에 16면의 하드코트가 추가되어 총 30면의 테니스장으로 육군사관학교 내에 위치(구리시 갈매동 457)하고 있다. 하지만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병사가 줄어들고 코트 바닥도 지어진지 20~30년이 경과하면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4년 4월, 제52대 육군사관학교장으로 부임한 양종수 장군은 평소에도 생도들에게 체육활동을 통한 리더십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어떻게 하면 노후화 된 테니스장을 보수하여 생도들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테니스협회는 2015년 9월 18일에 프랑스테니스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 그에 앞서 2월에 프랑스테니스협회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내년(2016년)부터 한국에서 랑데부 롤랑가로스 주니어대회를 개최하고 싶은데 클레이코트가 있느냐”고 문의하였고 당시 육사테니스장의 클레이코트를 둘러보고서는 이 시설을 보수하여 이곳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싶다는 의견을 대한테니스협회와 육사 측에 피력하였다.

이에 양종수 육사교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주원홍 전 회장에게 “악천후에도 수업이 가능토록 리모델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면서 “각종 법적 규제는 박영순 14대 구리시장이 생도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 면제를



## 육사 테니스장

육사  
소년자관학교

- 육사테니스장은 최초 1982년 클레이코트 16면으로 개장하여, 차후에 14면이 되었고 1995년에 하드코트 16면이 추가되어 총 30면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드코트가 매우 노후되어 2010년부터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더욱이 관리병사가 5명으로 삭감되어 테니스장 30면을 관리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무전 등 악천후 시에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 이제 52대 학교장 임종수 장군은 2014년 6월부터 대한테니스협회와 협의하여 생도 수업이 없는 시간에 대한테니스협회가 테니스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었다.
- 하지만 30면의 테니스장을 학원후에도 수업이 가능토록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각종 법적규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예산은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의 친종상인 주원석 (주)미디어윌 회장이 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으로써 해결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에 실내코트를 건설함에 따른 환경훼손분담금은 박영순 14대 구리시장이 생도교육 여건향상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약속함으로써 해소되었다.
- 이와 같이 많은 분들의 생도교육 여건개선에 협조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2015년 9월 19일 대한테니스협회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 9일 현재의 모습으로 재 개장하게 되었다.
- 이는 민-군 상생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은 물론, 육사가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우리나라 테니스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으므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대독 발전된 테니스장 운영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약속함으로써 해소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주원홍 전 회장은 생도교육 및 랑데부 롤랑가로스 주니어대회의 개최, 더 나아가 한국테니스 발전을 위해 서울에 30면의 테니스장이 확보된 육사테니스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시 대한테니스협회 주원석 부회장이 운영하는 미디어윌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육사테니스장은 2015년 12월 재개장 이후로 육사 생도들의 교육과 대한테니스협회의 각종 행사(해외 우수지도자 초청강습회, 랑데부 롤랑가로스 주니어대회, ITF 레벨1 코칭스쿨, 여자연맹회장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체육영재육성사업 등)와 생활체육 대회장소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디어윌은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관련 투자는 향후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 사업성 vs 공익성

미디어윌은 협회에 자금을 빌려주기 이전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건의 사업성 검토를 하였는데, 수익성이 없다는 잠정적 결론에 이르렀으나 테니스를 사랑하는 주원홍 전 회장의 간곡한 권유와 테니스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으로 30억원을 협회에 대여해 주었다. 미디어윌은 올 1월에 다시 한 번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건의 사업성 검토를 하였는데 시설수선비 총당과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상환을 받을 시 연 3.4억에서 최대 4.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부채납 기간과 운영인력의 수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으나 연 평균 가동율이 최소 50% 이상 유지되어야만 수익을 맞출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테니스장 이용수익 외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수익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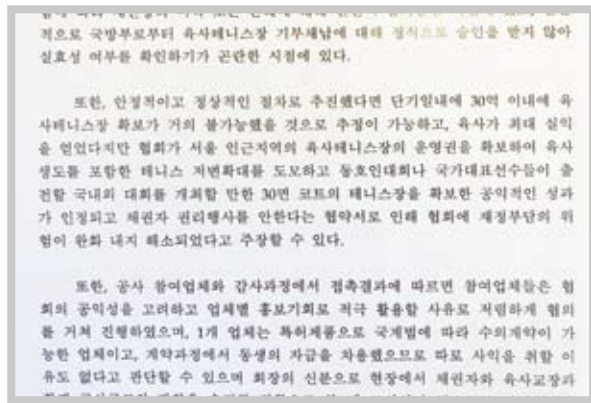
그렇지만 미디어윌은 열악한 국내 테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 등에 대해 주원홍 전 회장으로부터 여러차례 설명을 받고서는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관련 투자는 향후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 수익성이라는 경제적 효율성보다 대한민국 테니스 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명감에 입각하여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윌은 1992년부터 국내 유일의 테니스 전문매거진 '테니스코리아'를 창간하여 현재까지 25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고도 발행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벼룩시장배 국제챌린저대회를 개최하였고, 1993년부터 지금까지 벼룩시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형택 선수가 2007년 US오픈에서 16강에 오르는 위업을 달성하였을 때에도 미디어윌은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주원홍 전 회장이 대한테니스협회장으로 재직

시 미디어월은 매년 5억원씩 총 15억원을 협회에 찬조하였으며, 주원홍 전 회장이 장애인테니스협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재임 중에도 매년 3~5천만원씩 장애인테니스협회에 찬조하였다.

한편 주원홍 전 회장은 협회 정관 제43조(재산의 관리)의 '차입금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절차를 일부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건 및 그 사업추진비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사업 비용을 차용하였다.

대한테니스협회 제1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승인 받았으며(2015. 4. 23), 제2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기부채납 약정을 국방부로부터 허가받았다는 내용을 보고하였고(2015. 7. 13), 제3차 이사회에서 육사테니스장 재개장 및 실내코트 준공식을 개최하였다는 보고를 하였다(2015. 12. 22). 또한 201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사업비용 차용에 대하여 보고하고 논의를 거쳤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2016년 9월 대한테니스협회 종합감사결과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했다면 단기일내에 30억원 이내에서 육사테니스장 확보가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육사가 최대 실익을 얻었지만 협회가 서울 인근 지역의 육사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여 육사생도를 포함한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동호인대회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할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만한 30면의 테니스장을 확보한 공익적인 성과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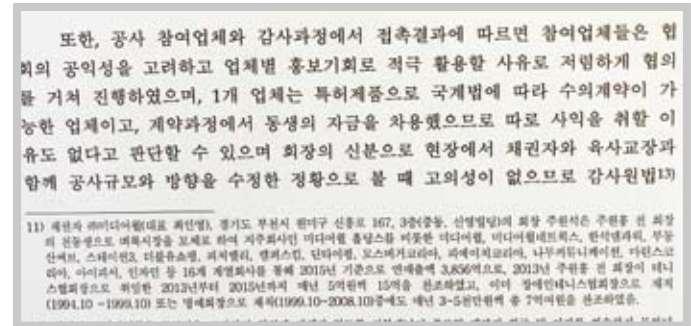
하지만 신 집행부는 열악한 국내 테니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익적 활용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수익성의 결여 때문에 육사테니스장의 건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공익법인의 본질 자체를 망각한 것으로, 주장 자체로 그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현 집행부가 대한민국의 테니스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며, 대한민국의 테니스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수익계약이 리베이트 때문?

이렇게 탄생된 육사테니스장과 관련한 민원이 2016년 5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 당시 조사관은 "민원인은 밝힐 수 없으나 대한테니스협회가 거액의 차입금을 발생시켜서 육사테니스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 민원의 요지라고 확인해 주었고, 7월부터는

서울 인근 지역의 육사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하여 육사생도를 포함한 테니스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국내외 대회를 개최할만한 30면의 테니스장을 확보한 공익적인 성과가 인정된다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육사테니스장을 감사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실 관계자는 "공익단체인 대한테니스협회가 30억원을 차용할 정도로 육사테니스장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공사과정 중에 리베이트가 오갔는지를 파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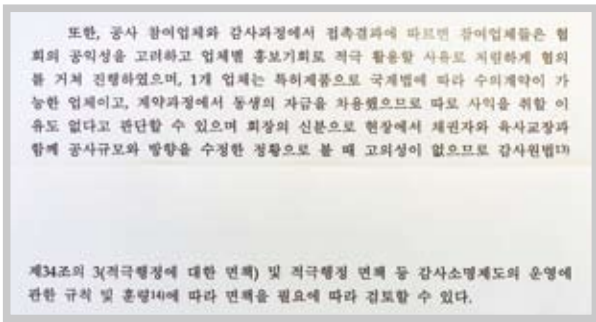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업체와 수익계약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참여 업체를 접촉한 결과 참여 업체들은 협회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업체별 홍보기회로 적극 활용할 사유로 저렴하게 협의를 거쳐 진행하였으며, 1개 업체는 특허제품으로 국제법에 따라 수익계약이 가능한 업체이고, 계약과정에서 동생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따로 사익을 취할 이 유도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회장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채권자와 육사교장과 함께 공사규모와 방향을 수정한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감사원법13)

공사업체인 한아테크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성능인증제도에 따라 그리고 케이엠더블유(에그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및 녹색기술인증으로 수익계약이 가능한 업체들이다. 또 다른 공사업체인 청림ENC는 육사 진입도로 개선, 출입게이트 설치, 관사 지역 경계설치, 배수로 및 주변환경 개선, 옥외 화장실 설치, 실외코트 뒤편 보수를 담당하였는데, 이 업체는 다년간 육군사관학교 내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로, 육군사관학교가 군부대 시설이어서 보안 관계로 일반 업체의 공사가 어려워 육군사관학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되었다. 그 외의 공사업체인 유신에코그린, 앙투카에스엘, 베노, 케이티라이팅 등도 자사 제품 홍보 목적으로 조달청 가격과 비교하여 절반 정도 수준의 비용으로 공사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하여 선정된 업체들이다.

또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를 보면 "계약 과정에서 동생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따로 사익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면서 "주원홍 전 회장이 협회장

| (금액: 원) |                       |    |                   |                   |                          |
|---------|-----------------------|----|-------------------|-------------------|--------------------------|
| 업체명     | 품목                    | 단위 | 물가정보지 단가          | 업체단가              | 육사코트 단가                  |
| 유신에코그린  | 실외 인조잔디 코트            | 1㎡ | 43,750~86,400     | 30,470~37,500     | 24,200                   |
| 베노      | 실내, 실외 아트클레이 코트       | 1㎡ | 54,000            | 50,600            | 27,000(실내)<br>23,000(실외) |
| 앙투카에스엘  | 실외 앙투카 코트             | 1㎡ | 34,900            | 34,000            | 18,500                   |
| 케이티라이팅  | 실외 조명                 | 6면 | 510,235,000(설계금액) | 443,905,000(조달금액) | 278,739,000              |
| 에그로     | 실내 조명                 | 6면 | 없음                | 280,544,000       | 249,590,000              |
| 청림 ENC  | 진입로 및 경계설치, 화장실, 뒤편공사 |    | 없음                | 360,000,000       | 298,243,000              |



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채권자와 육사교장과 함께 공사규모와 방향을 수정한 정황으로 볼 때 고의성이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34조의 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 감사소명 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훈령에 따라 면책을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미디어월에 특혜 제공?

주원홍 전 회장은 당초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월로부터 30억원을 차입하여 육사테니스장을 공사하면서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을 하였으나, 형제간인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이자를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게 되었다.

주원홍 전 회장은 2016년 2월 4일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집행부에 육사테니스장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약속도 하였다. 이에 따라 미디어월은 2015년 9월, 처음 자금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2016년 7월 1일자로 새로운 협약을 맺기 전까지 실제로 단 한 차례도 대한테니스협회에 원금 상환 독촉이나 이자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또한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조사와 대한체육회 감사 과정에서 미디어월 측은 "차입금 때문에 협회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이다. 미디어월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대한테니스협회는 2016년 7월 1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 '협회의 차입금 상환부담 완화 및 미디어월과의 전대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그날 미디어월과 새로운 협약을 맺게 되었다. 새로운 협약의 주요 골자는 "을(미디어월)은 갑(대한테니스협회)으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갑의 운영목적에 맞게 성실히 운영하며, 30억원의 차입금 및 이자는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회수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기간 동안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갑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디어월은 대한테니스협회와의 기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30억원의 차입금 및 이자에 대하여 육사테니스장 운영 수익금으로만 회수하고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협약을 근거로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정산을 요구했다. 당시 대한테니스협회는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으로 45,701,732원과 육사테니스장 공사대금의 부가세 환급으로 226,001,550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다.

을(미디어월)은 갑(대한테니스협회)으로부터 육사테니스장을 위임받아 운영하면서 30억원의 차입금 및 이자는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회수하도록 하며, 기부채납 기간 동안 차용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어떠한 경우여라도 갑에게 상환 요구를 하지 않으며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미디어월은 2016년 8월과 9월 두 차례 정산 및 협약서 준수를 공문으로 정식 요청하였으나 협회로부터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협회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하고 말았다. 미디어월은 원만한 협의를 위해 육사 및 대한테니스협회와의 3자 미팅까지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 대한테니스협회의 거절로 성사 되지 못하였다. 미디어월은 육사테니스장 리모델링 대여금에 대해 대한테니스협회로부터 단 한 차례도 이자나 원금 상환을 받지 못하였으나 협회는 육사 측에 자기들이 이자를 내고 있다고 거짓 주장까지 하였다.

육사테니스장은 한국 테니스 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육사생도 교육과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 등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국내 최초로 민간군이 협력하여 탄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공익사업인 바, 투자자인 미디어월 역시 사업취지에 동참하여 육사테니스장 운영수익금 범위 내에서만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협약을 맺어 대한테니스협회에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 집행부는 미디어월에 특혜를 주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신 집행부는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월 간의 새로운 협약이 대한테니스협회에는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주지 않는 유리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김지식 회장 직무대행이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육사테니스

장을 제3자에게 관리

위탁 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할 수 없다며 육사와의 협약서를 근

거로 제시하지만 이것 역시 허위 임이 밝혀졌다. 육사와 협회의 협약서 제2조 2항을 보면 제3자와 테니스장을 공동으로 관리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 운영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채무면제 청약에 대해 승낙하는 경우와 같이(의무만을 면하는 것) 대한테니스협회에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도 가져오지 않고 유리한 결과만 가져오는 계약 체결 등에 있어서는 협회장 직무대행자도 협회장과 같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바, 이 부분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정기종합감사에서 "새로이 협약서를 체결하여 협회 재산상의 손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완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해에 대해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적시하였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월과의 협약에 따라 육사테니스장 관리 운영권을 미디어월에 채임하고, 모든 채무에서 면제를 받고, 육사테니스장이 필요할 경우 협회가 사용하면 된다. 지금까지 협약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미디어월에 30억원을 상환하고 직접 육사테니스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테니스협회는 30억원 원금은 커녕 이자 한 톨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주원홍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미디어월은 대한테니스협회 신 집행부와 더 이상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0

